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등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54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재준  
집필인 강병준  
이대신문사 (☎02-962-7128, 965-7001)  
외대학보 (☎02-965-7048, 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창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 525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10월 3일 (화요일)

## 서울 고시실 사태 악화 일로

### 학교측, 찬반투표제안 10분후 번복 학생측, 고시실 이전안 지지 확산돼

#### 총6차협상 성과없이 끝나

서울캠퍼스 고시실의 파업이, 지난 9월19일(화) 4개 고시실이 자진해산하고 집기 침묵농성에 돌입한 이후, 법과대학원의 교내시위를 확산해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으나, 보류이 지난 현재까지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 합의사항반복 등으로 학생측의 기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일(토)까지 총6차에 걸친 고시실발전을 위한 소위원회(학교측5인, 학생측5인으로 구성) 협상중 28일(목) 3차 협상시 ▲고시실이전을 92년말 까지 완료 ▲비용은 등록금인상의 요인으로 문제삼지 않음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학교정책으로 실행할 등에 구두합의하여 양자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나 4

차협상이 열린 29일(금)학교측의 회피로 파기되었다. 같은날 5차례의에서 학교측은 고시실이전 문제는 전체제학생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10분뒤 이를 반박하였으며 또한 학교행정과 교수가 주재하고 학생측 대표단과 감정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날 협상에서 정준준(성경·무역4)학자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등록금 동결투쟁에서 학생측이 7%인상을 수락한 것은 인상분이 학교의 발전에 전액 쓰여진다는 조건하에 결정된 것이었다.며 "전실과 정외로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권리와 의무, 기한 등을 가르치지 않는가"라면서 학교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한편, 최근 학자특위가 자체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시실의 반포정기 기여정도에 대해 응답자중 88.8%가 "합격자의 배수로 분포정기를 늘린다"와 "반포의 특성을 살린 수 있다."

### 특준위, 정치토론회 개최 총학 산하로 편성될 용의 시사

전교조-전대협시수와 민족운동연합분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준위) 주최 "전교조시수의 민족운동연합분부를 위한 정치토론회"가 지난 9월 26일(화) 대학원 104호에서 개최된 현시기 파쇼악법철폐운동의 필요성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준위의 소속학생 및 일반학생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특준위는 분교총학생회 및 상층원에게 "총학생회는 민생추진위원회와 반비조국동맹투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켰지만, 반조국권선술을 하고자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정쟁부 학생들의 잇따른 수배·인행·구속 와중에서 시흥련의 전중련, 사학련 건설시도는 무리이며, 자체정치에 몰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준위 자체평가에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

### 사회대, 학술제 개최 토지구개념 토론회도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교수, 학생간의 유대강화, 학생의 학술논문을 발표를 목적으로 오는 10월 5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6일(금)까지 사회과학관 앞에서 "제4회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제는 5일(목) "전략경영을 위한 성공적 경영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연구" 등 논문발표를 시작으로 "토지구개념 토론회"가 벌어지고 6일(금)에는 "한국정치경제학의 현황과 전망"

#### 학자특위 설문조사 결과

## 학생 96%, 학교직영 불만

### 교수협 "유명무실" "체질 개선 시급"

서울캠퍼스 제학생의 96%가 식당, 매점, 서점 등 학생수익사업의 학교직영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원자주특위위원회의가 지난 23일(토)부터 27일(수)까지 제학생 1천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현재 시행되는 수익사업의 학교직영은 수익금의 사용내역 불투명(64.8%) 학교측의 권의주의적 운영(31.2%) 시설의 낙후(5.8%)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었

다. 학생직영화에 관해서는 수익사업의 확대제후자 및 부유층출발의 학교직영에 부정적 견해(84.4%), 양질의 제품공급(16.7%) 무적기회의 확대(7.3%)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94.5%의 학생이 현 교수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총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35.4%) 학교발전발전금(35.5%)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전보적 과목모두인 것일수록 바람직하며, 윤리과목의 완전폐지(21.6%), 우수교수전용(36.1%), 교수의 신변보호(58.6%) 등이 나타나 학생-교수간의 의견교환 및 중동결정을 통한 교과목 개정이 절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결의대회 열기도

또한 특준위는 28일(목)초전극에서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운동연합분부와 파쇼악법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민족적에 대한 조직적 태도를 확립할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집회후 시위도중 인행연행 박종필(경과·선남1)이 최일범 사용처변에 관한 범법위반행위 혐의로 지난 29일(금) 구속되었다.

### 「국제 통일법」주제로 법대, 교양특강 개최

법과대학교양특강이 법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토) 오전10시30분부터 대학원 311호에서 개최된다.

「국제통일법-발전인가 제약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현 서독 민트더너 오토 잔드록(Otto Sandrock)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 교지 편집장 신호식군 구속

교지편집위원회편집장 신호식군(성경·무역3)이 지난 8월25일(금) 열린 집회시범법 소거와 관련, 김희열 시위·학생회차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신호식은 지난 9월19일(화) 동아리연합회장 이현열(중앙·일어)의 시위시범법법선 선고공판에서 범법소관으로 구속10월 선고받은 뒤, 28일(목)중앙집회공판으로 연행된 현재 장항리경찰서에 수감 중이다.

#### 중간고사 일정

서울-용인캠퍼스 8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일정은 오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16일(일)까지 6일간으로 확정되었다. 모든 강의가 휴강되고 시험만 실시되는 이번 중간고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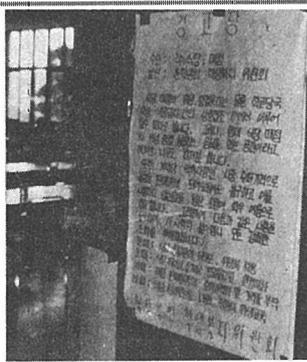
▲내세개, 아이고 내세개, 는 드고는 못 보겠네,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어찌 세 얼음이 저렇게 커질망가, 저 눈 좀 보소, 아이고 내 보던 못하겠네...  
▲그런 와중에 아내랑 사인인정서랑 투쟁이 50일 가까이 계속되었고 며칠전 의미 교수들에 의해 파격적인 「탈출」의 근거들이 제기됐다. 다시 아내랑 사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하지만 완전한 진상규명이 당국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전과적인 대학생들을 강제 위원으로 하는 아내랑군의 강제적이 있는 금요일 서울역동거에서 치러지는 것이다.

#### 「공안정국 세균」

있는 「공안정국세균」, 「공안정국세균」은 위문사를 발치한 새로운 위문사를 계속 복제해 내는 현정국은 이제 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다가오는 정국에는 이를 위한 기록제가 되어야 할 두 딸한 나귀가 없다.

▲아직까지 「인자」를 잘 만나고 「공안정국세균」의 판서와 전국민의 참여하여 치료, 일일이 제거하기 힘든 「공안정국세균」의 치유책은 오직 하나, 「발군현」을 뿌려 제쳐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는 역을 하게 죽은 자들을 품어 안고 세상을 행방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말자.

(임재권)



용인캠퍼스 구내식당에 붙은 복지위원회의 경고장. 학원자주와 회의시 교수와 학생사이에서 「제지우리」라는 표현이 거론됨을 식당업주는 알고 있는 지... (주재영기자)

#### 하수도

▲동대의 사건 3명 사형 구형... 이데도 되는 건가요... ▲본교 축제농담 진행... 한부의 저격수 수배에 확정... 내 낮 질문!...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리자... 하야

○이철규 열사의 시신이 아직도 따뜻한 양지를 찾지 못한채 우리는 조국의 자주-민중-통일을 위해 한몸바쳐 싸워 나가던 동지를 잃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대학 백만학도는 의열중앙대학교 2만학우와 함께 고 이내창열사의 사인 진상규명 투쟁에 뜨겁게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매주 화요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고 이내창 열사 진대협장

제 27회 외대문학상 작품모집  
외대는 젊음을 잃었습니다. 외대의 문학혼은 이단기에 숨어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치열한 고뇌와 지성의 해안으로 척박한 외대문학 풍토를 개혁할 스물 일곱명의 외대문학상에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부문: 시(3편이내)소설(60매 내외) 평론(50매 내외) 번역(60매 내외) 희곡(50매 내외)  
▲접수일: 문학지: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마감: 11월9일(금)  
▲심사위원회 상금: 추후발표

#### 외대학보

#### 인간과 기술의 만남-테크노피아

#### 人間・技術・未來

#### 라키금성

# “青年的條件”

## 身·言·書·判 그리고 또한 世界를 보는 큰 눈

옛부터 사람은 몸가짐(身), 말(言), 문필(書), 판단력(判)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세계를 보는 큰 안목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조를 위해,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세계를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큰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국제화시대에 온 인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경시위 중국사회변혁속에서의 올바른 인식 <하>

이희훈  
(교양학부 강사)

(524호 이어서)

### 3) 조자양이나 이봉이나

모든 대중운동은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는 과정에서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해 왔다.

최근 조자양의 실각과 이봉-양상근-강태민으로 이어지는 연립내각의 부활은 중국사회의 개방정책을 둘러싼 조정정책과 적극개방의 노선투쟁으로 귀결된다. 이봉의 '조자양이 이르는 개방정책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발언을 통해 88년 13기 3차 중앙위원회회의를 내걸고 개혁의 대외적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개성과 강도를, 개혁의 범위와 속도, 개혁의 방향과 방향을 정하는 데는 이념의 보수경쟁의 기초에서 대립하는 이념의 대립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봉의 발언은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는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해 왔다.

사람들이 호방의 사방이후 조자양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대중운동은 중국사회의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발언을 통해 88년 13기 3차 중앙위원회회의를 내걸고 개혁의 대외적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개성과 강도를, 개혁의 범위와 속도, 개혁의 방향과 방향을 정하는 데는 이념의 대립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봉의 발언은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는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해 왔다.

## 학생운동, 사회주의의 완결적 성격 따나 노동자 관점 없는 한계까지

로 부정하면서 공산당중앙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5·4선선을 통해 운동을 격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정신적 요소를 정화하고 있는 제 적극개방의 시정, 개혁, 개혁의 범위와 속도, 개혁의 방향과 방향을 정하는 데는 이념의 대립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봉의 발언은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는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해 왔다.

이봉파도, 조자양 부근을 선 택하였으나, 부정부패와 권력투쟁의 면면에 대한 해명대안 없이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4. 외세의 개입

중국사회의 단식농성과 5·4선 선의 조자양의 담화형용 운동이 격화되면서 우원학적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은 총동, 단식농성의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봉의 정책노선은

중공총서본가들이 지원한 구상에서 거둔 자금으로 일부 부조자세는 자유론, 민주대학, 자유의 여신상등을 설치하였으나, 대륙민주운동금을 모은 대만기업가, 대만 문화예술계가 '일동연결대륙민주운동' 명목의 자금을 막대하게 대폭으로 유입되어 시위격화의 물결도대폭

제미중국유학생의 비자기간 연장, 군수중과 상업성 무기수출금지, 군사지도자들의 방한을 금지시켰다. 미국정부와 선진국기업들의 이러한 내정간섭은 그들이 소위 '평화적 진전(平和演進)'이라는 야심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된다.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에 조충하지 못하는 정치개혁의 요구를 통해 중국사회주의의 발전과 완결을 지향할 때에도 노정할 인민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요구를 자체적 정치개혁의 프로세스가 없이 강권집행을 집행한 것은 중국혁명의 고결성을 후한 것으로 보는 일관이다. (중국당국은 이 사실조차 외래부조자와 결탁한 반혁명분자의 인위법규 집행으로 아귀되었다 주장한다: 연일보 7월6일)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전하여 학생시위의 정당성을 유해하는 데에도 그 시위의 정당성을 5월연립, 일부의 오류를 전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모든 사회주의적 이론방향을 넘어선 과민한 보수주의였다.



중국사회주의 발전은 사회주의의 정칙적 요소와 생산력의 결실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하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모든 사회주의적 이론방향을 넘어선 과민한 보수주의였다.

## 대학원 학회연합 심포지엄을 앞두고 본 학술연구의 발전방향

현재 본교내 사회과학 학술 풍토는 신적색의 교과과정 문예나 교수 연구의 한계에서 다각적인 연구 계대로 확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절충은 강의실에서 수업 받을 경우 이원사설에 대한 목적의식 결실 과정이 단순히 '대형'으로 예목 인식의 이치고, 강의내용으로부터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사실분석의 관점 차이 인정하고 비판속에 다각적 연구풍토 필요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론 심포지엄은 본교의 활성화와 관련된 학문연구에서 풍부한 학문의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5. 유혈진압을 보는 두 시각

6월4일 천안문 유혈진압에 대한 인식차이는 사상자의 숫자에서부터 학생시위의 위상과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서방의 보도에도 유혈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선전하면서, '피로 맺은 천안문, '피의방 중국'이라는 격렬한 '피의방 중국'을 말한 천안문 학생들의 진취적 요구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승리를 촉구했다는 홍보에 힘입고 있다. 그들은 일부 제국주의의 이익에 결탁한 부르주아와 부르주아사상으로 무장된 견해를 확대해석하여 부르주아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도전에 선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전혀 객관적 정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천안문학생운동에서 제기한 민주주의적 쟁점과 쟁점의 대립적 성격은 결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중국혁명의 고결성을 후한 것으로 보는 일관이다. (중국당국은 이 사실조차 외래부조자와 결탁한 반혁명분자의 인위법규 집행으로 아귀되었다 주장한다: 연일보 7월6일)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전하여 학생시위의 정당성을 유해하는 데에도 그 시위의 정당성을 5월연립, 일부의 오류를 전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모든 사회주의적 이론방향을 넘어선 과민한 보수주의였다.

## 운동지도부, 자본주의의 요소 차단과 대중노선 기초한 구호속에서 생산력 발달 추구했어야

가, 또는 중국시위가 세계사회의 개혁운동의 조류에서 차지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 능을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전혀 객관적 정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천안문학생운동에서 제기한 민주주의적 쟁점과 쟁점의 대립적 성격은 결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중국혁명의 고결성을 후한 것으로 보는 일관이다. (중국당국은 이 사실조차 외래부조자와 결탁한 반혁명분자의 인위법규 집행으로 아귀되었다 주장한다: 연일보 7월6일)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전하여 학생시위의 정당성을 유해하는 데에도 그 시위의 정당성을 5월연립, 일부의 오류를 전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모든 사회주의적 이론방향을 넘어선 과민한 보수주의였다.

### 6. 학생시위의 한계

중국학생시위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구분을 통한 전체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학생운동의 태세로서의 표명과 일부 학원적 부르주아운동은 엄밀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운동 지도부의 운동방향의 전체적 지도체로서 나타나며, 특히 급진개혁의 대항의 세력들이 내리고 있으므로 배제하지 않고 배제할 형을 받아야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중국혁명의 고결성을 후한 것으로 보는 일관이다. (중국당국은 이 사실조차 외래부조자와 결탁한 반혁명분자의 인위법규 집행으로 아귀되었다 주장한다: 연일보 7월6일)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전혀 객관적 정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천안문학생운동에서 제기한 민주주의적 쟁점과 쟁점의 대립적 성격은 결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중국혁명의 고결성을 후한 것으로 보는 일관이다. (중국당국은 이 사실조차 외래부조자와 결탁한 반혁명분자의 인위법규 집행으로 아귀되었다 주장한다: 연일보 7월6일)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전하여 학생시위의 정당성을 유해하는 데에도 그 시위의 정당성을 5월연립, 일부의 오류를 전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모든 사회주의적 이론방향을 넘어선 과민한 보수주의였다.

# 社員募集

事務職 營業職	募集部門	人員	應試資格
	經營學, 會計學, 經濟學, 貿易學	○○名	
技術職	化學, 化工學, 高分子學, 機械學, 電氣學, 電子學, 纖維學, 産業學, 環境學, 食品學, 畜産學, 生物學, 藥學	○○名	1. 正規4年制大學畢業該當學科 專攻科로서 '90年 2月 學士學位 取得權定者 또는 取得者 2. 1962年 1月 1日以後 出生者
研究職	有機合成, 分析化學, 高分子學, 纖維學, 纖維工程, 藥學	○○名	1. 該當部門 碩士學位以上 所持者

※各部門 人員이 兵役義務 學 또는 免除者  
※研究職은 兵役法에 의한 特例補充役 該當者 (未畢者)

2. 報名方法
  - ① 書類審査 ② 筆記試驗: 英語, 論文(事例研究) ③ 面接 및 研究職은 筆記試驗 있음
3. 筆記試驗
  - ① 日 時: 1989年 11月 5日(日) 午前 10時
  - ② 場 所: 中央高等學校(서울 鍾路區 桂洞 所在 ☎ 742-1321~5)
4. 提出書類
  - ① 入社志願書 및 自己紹介書(當社 所定様式).....各 1部
  - ② 最終學校 全年學 成績證明書(研究職은 大學成績 包含).....1部
  - ③ 學位, 資格證 寫本(研究職에 限함).....各 1部

5. 願書交付 및 接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交付期間: '89. 10. 5(日) ~ 10. 14(土)</li> <li>• 交付場所:           <table border="1"> <tr> <td>本 社</td> <td>(740) 7155-7</td> <td>서울 特別市 鍾路區 蓮洞 洞263</td> </tr> <tr> <td>釜山支店</td> <td>(463) 3841</td> <td>釜山直轄市 中區 中央洞 4街 85-8</td> </tr> <tr> <td>大邱支店</td> <td>(753) 9901</td> <td>大邱直轄市 東區 新川3洞 89-1</td> </tr> <tr> <td>光州支店</td> <td>(525) 9911</td> <td>光州直轄市 北區 新安洞 5-3</td> </tr> <tr> <td>大田事務所</td> <td>(626) 2311</td> <td>大田直轄市 東區 佳陽洞 2街 288-3</td> </tr> <tr> <td>馬山事務所</td> <td>(93) 2661</td> <td>馬山直轄市 楠洞 洞 462-3</td> </tr> <tr> <td>蔚山工場</td> <td>(72) 7611</td> <td>蔚山直轄市 南區 梅岩洞 360</td> </tr> <tr> <td>全州工場</td> <td>(72) 1234</td> <td>全州直轄市 八福洞 2街 339</td> </tr> <tr> <td>鮮一(仁川工場)</td> <td>(867) 5071</td> <td>仁川直轄市 西區 佳佐洞 285</td> </tr> </table> </li> </ul>	本 社	(740) 7155-7	서울 特別市 鍾路區 蓮洞 洞263	釜山支店	(463) 3841	釜山直轄市 中區 中央洞 4街 85-8	大邱支店	(753) 9901	大邱直轄市 東區 新川3洞 89-1	光州支店	(525) 9911	光州直轄市 北區 新安洞 5-3	大田事務所	(626) 2311	大田直轄市 東區 佳陽洞 2街 288-3	馬山事務所	(93) 2661	馬山直轄市 楠洞 洞 462-3	蔚山工場	(72) 7611	蔚山直轄市 南區 梅岩洞 360	全州工場	(72) 1234	全州直轄市 八福洞 2街 339	鮮一(仁川工場)	(867) 5071	仁川直轄市 西區 佳佐洞 285
本 社	(740) 7155-7	서울 特別市 鍾路區 蓮洞 洞263																									
釜山支店	(463) 3841	釜山直轄市 中區 中央洞 4街 85-8																									
大邱支店	(753) 9901	大邱直轄市 東區 新川3洞 89-1																									
光州支店	(525) 9911	光州直轄市 北區 新安洞 5-3																									
大田事務所	(626) 2311	大田直轄市 東區 佳陽洞 2街 288-3																									
馬山事務所	(93) 2661	馬山直轄市 楠洞 洞 462-3																									
蔚山工場	(72) 7611	蔚山直轄市 南區 梅岩洞 360																									
全州工場	(72) 1234	全州直轄市 八福洞 2街 339																									
鮮一(仁川工場)	(867) 5071	仁川直轄市 西區 佳佐洞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接受期間: 1989年 10月 10日(火) ~ 10月 14日(土)</li> <li>• 接受場所: (110-470) 서울 特別市 鍾路區 蓮洞 洞 263 株式會社 三養社 總務部 電話: 740-7155-7</li> </ul>																											

6. 其他
  - ① 募集人員中에는 系列会社(鮮一도糖株式會社, 三南石油化學株式會社, 三養化成株式會社) 人員이 包含되어 있음
  - ② 國家報稅好意者는 關係法에 의거 優待함
  - ③ 郵便接受는 10月 14日(土) 13:00까지 到着分에 限함
  - ④ 其他 詳細한 事項은 當社 總務部(電話 740-7155, 7156, 7157)로 問議바람  
1989年 9월

